



광주경총, 이강수 하림그룹 부회장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지난달 28일 힐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이강수 전 하림그룹 부회장을 초청해 '병아리 10마리의 신화, 그 기업이 정신과 경영리더십'이라는 주제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654회 금요조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강수 부회장은 CJ모닝웰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하림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견기업이었던 하림그룹을 대기업으로 만들어낸 주역 중 한명이다. 강연에서 이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이 되기 위해선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이 필요하다"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고 조금이라도 안일한 마음을 갖는 순간 기업은 성장을 멈추고, 쇠퇴의 길로 치닫는다"고 강조했다. 7월 금요조찬 포럼은 △5일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12일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 △19일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차례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환경공단, 합동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광주환경공단은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정보보안협의체(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구성원과 함께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소중한 개인정보 함께 지켜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30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1일 광주시 정보보안협의체 구성 후 첫 대외 활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유출사고 시 대응 방법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또 미래산업발전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광주시 정보보안협의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 ZERO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스마트인재원, 광주빌딩서 개원식·입주식

스마트인재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동구 광주빌딩에서 스마트인재개발원·AI캠퍼스 개원식 및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개원식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배복환 동구청 부청장, 김재식 동구의회의장, 박미정·홍기월 시의원, 채종환 광주광역시 시·도청과장, 안상범 광주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 고병곤 광주고용복지센터 소장, 배상현 조선대학교 상황정보통신박물관장 등 50여명의 행정,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스마트인재원 산하 교육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과 AI캠퍼스 등이 입주하는 8층 규모 광주빌딩에는 국비취업교육을 받는 수강생 230여명과 임직원·강사진 7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이 상주하며 광주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기자



광주시, 2024 상반기 공무원 57명 퇴임식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4년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무원 퇴직자는 정년퇴직 29명, 명예퇴직 21명, 의원면직 3명 등 총 53명이다. 또 공무원 4명도 정년퇴직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퇴직 공무원 8명과 가족, 후배 공무원들이 참석해 퇴직자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축하하고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상반기 퇴직자 중 30명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정부 훈·포장이 수여됐으며, 퇴직자 모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후배 공직자들은 선배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풍력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워크숍

전남도는 지난달 28일까지 이틀간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22개 지자체 풍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워크숍에는 전남도, 사단법인 전남풍력산업협회, 22개 지자체,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본격 조성됨에 따라 풍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방향, 해상풍력 특별법 및 공공 주도 해상풍력 추진 방향,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및 사례 등 강의와 더불어 공공 주도의 체계적 해상풍력 추진과 도·시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도 이뤄졌다.

협의체에는 전남도와 목포·여수·고흥·해남·영암·영광·완도·진도·신안 등 9개 시군,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참여한다. 오지현 기자



광주 북부경찰,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이 지역 내 범죄·사고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북부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에서 범죄예방·교통과, 지역 경찰이 합동해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내 기초질서를 확립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수막,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해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차북영 북부경찰서장은 "기초질서 확립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로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인사

전남도 ◇국장급(3급) 전임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국장급 전출 △여수부시장 최정기

△해남부군수 손명도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조석훈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선양규

◇국장급 전보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준국장급(4급) 전임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여수사건지원담당 김차진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용

◇준국장급 전출 △보성부군수 서형빈

△강진부군수 이병철 △진도부군수 김선주

△신안부군수 김대인 ◇준국장급 전보 △비서실장

이상용 △혁신도시지원담당 최영주

◇과장급(4급) 전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최용재

◇과장급 전출 △나주시 김병호

◇과장급 승진 △청렴지원관 이근재

△여성정책지원관 고민정

△의대설립추진담당 김상철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찬

△투자유치과장 양경욱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 김두용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한국농어촌공사(파견) 장경석

△RISE사업추진담당(파견) 홍양현

△전남바이오진흥원(파견) 신준수

△국회사무처(파견) 차은령

△행정안전부(파견) 최순희

◇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정혜정

△안전정책과장 김미

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기반산업과장 박부영

△스포츠산업과장 오미경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진미선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운역지원과장 김봉균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임철순

△교육지원과장 최정은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원장

이경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용덕

△전남테크노파크(파견) 강인중

△전남환경산업진흥원(파견) 최석남

△에너지공대협력단(파견) 박석현

△전남도교육청(파견) 송문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파견) 이정준

광주시체육회

◇전보 △문부흥 체육운영본부장 △강필요 안전시설본부장 △안재우 경영지원부장 △노지칠 체육진흥부장 △홍은주 안전감사부장 △박정훈 재무회계팀장 △박희영 대회운영팀장 △노장완 스포츠마케팅팀장 △전정민 스포츠사업팀장 △박성용 법무감사실장 △고익상 염주팀장 △임유승 무등팀장 △선형근 진월팀장

김연경, 은퇴식 불참러 폭로 "바쁜 유재석도 왔는데"

한국 여자배구 최고의 스타인 김연경(사진)이 입담을 뽐냈다.

30일 오후 4시40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김연경이 새로운 보스로 출연한다.

이날 여자 배구 올스타전을 보던 중 개그우먼 김숙이 "다음 이벤트 때 코리아 팀은 전현무 씨가, 대한민국 팀은 박명수 씨가 감독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김연경도 바라던 일이라는 듯 "시간 되시면 부탁드린다"고 깜짝 러브콜을 보냈다.

특히 김연경이 MC 전현무에게 "지금도 프로그램 21개로 바쁘실텐데 팬찮으세요?"라며 스के줄을 체크했다.

전현무는 "22개로 만들면 되죠"라며 흔쾌히 응한다. 개그맨 박명수도 "전 지금도 가능해요"라며 무한 긍정의 꼴을 외친다.

그러나 김연경은 박명수에 버럭하며



손절모드로 돌아선다. 김연경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박명수를 선택, "이번 국가대표 은퇴식에 박명수 씨를 초대했는데 안 오셨더라. 바쁜 재석 오빠도와 주셨는데"라고 박명수의 은퇴식 불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다.

이를 들은 김숙도 "바쁜 송은이도 갔더라"라고 말을 보태며 김연경을 엄호한다.

박명수는 "저도 가고 싶었는데 개인사가 있었다"며 말을 잊지 못한다. 결국 박명수는 "앞으로 경조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라며 향후 행사는 꼭 참석하겠다고 어필했다. 하지만 김연경은 "그때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라며 빠르게 손절해 웃음을 안겼다.

뉴스스

하정우·여진구 '하이재킹', 100만 관객 돌파

영화 '하이재킹'이 개봉 10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사진)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이재킹'은 이날 오전 누적관객수 100만명을 넘겼다.

'하이재킹'은 개봉 후 9일간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굳건한 존재감을 지켰다. 이는 한국 영화 경쟁작들은 물론, 대형 외화들이 포진된 시장에서 관람객들의 꾸준한 입소문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그 의미를 더한다.

지난달 21일 개봉한 '하이재킹'은 1971년 1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되고, 승무



원과 승객이 나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나서는 과정을 담았다.

배우 하정우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가장 '태인'을, 여진구는 비행기 납치범 '윤대'를 맡았다. 이외에 배우 성동일, 채수민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신에 김성한 감독이 했다.

뉴스스